

## 현진건의 자전적 신변소설 연구 -- 《타락자》를 중심으로

金英姬\*

### 1. 들어가면서

1920-1930년대 한국 문단에는 이른바 작자 자신을 직접 작품 속에 드러내면서 작자의 내면세계까지 숨김없이 폭로하는 새로운 양식의 소설이 등장하여 큰 주목을 끌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소설을 “자전적 신변 소설”이라고 하였다.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기존의 소설 양식과는 다른 새로운 양식의 소설을 개척했다는 것은 일단 소설의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작자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법의 시도로서 소설학적 차원에서도 큰 실제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근대문학사에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소설은 일본의 사소설(私小説)을 떠나서는 논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소설은 일본 사소설의 영향 하에 나타났고, 또한 일본 사소설과 비교해 볼 때 문학적으로 공유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일본 사소설의 영향이나 그 관련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일본 사소설과의 연관성 속에서 현진건의 《타락자》를 실례로 그의 일본 사소설의 수용 양상과 자전적 신변소설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일본 사소설과 그 문학적 특징

사소설은 일본 근대소설의 가장 독특한 형태로서 일본에서 제일 처음 나타난 소설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소설은 단순히 작가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고백의 형태로 가차없이 폭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 왔다. 구메 마사오(久米正雄)는 “사소설은 작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 체험을 고백적으로 표현한 소설로서 자기의 생활 기록에 의탁하여 인생관과 생활 태도를 표현하는 시야가 좁은 일본의 독자적인 소설양식”<sup>1</sup>이라고 지적 하였다.

사소설은 일본 문인들이 서구로부터 자연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여 그후 대정시대(大正時代, 1912~1926)를 거치면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자연주의와 사소설의 유착 관계는 다른 나라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자아의 내면을 폭로하는 고백문학으로 변용된 일본의 자연주의는 작가의 내면으로 문제의 핵심을 끌어들었다. 자연주의의 시선은 거울과 같아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 거울이 작가의 내면투사용으로 전용되어 작가 자신의 내장을 찍는 내시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본의 자연주의는 (1)사상적 측면에서 주아주의(主我主義), 주정주의(主情主義), 자연애, 등 로맨틱인 경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2)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주의, 선택권의 배제, 반수사학 등 사실적 경향이 나타난다. (3)제재 상에서는 사실적 특성이 노출되는바 보통 인간의 일상사에 관한

\*廣東外貿外語大學韓國語專業 副教授

<sup>1</sup> 박재범, “곽말약, 옥달부의 신변소설과 일본의 사소설”(『중국어논총』), p327, 재인용.

관심, 인간의 본능에 대한 긍정, 특히 성에 대한 관심 등에서 사실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4)장르 면에서는 허구 부정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소설이 소설문학의 본령으로 간주되었다.<sup>2</sup>

『중국현대소설사』에서는 사소설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 설명함으로써 사소설문학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사소설은 ‘나’를 예술적 기초로 간주하고 작자 자신의 생활의 재현을 강조하며 작자의 생활과 작품의 완전한 합일을 추구한다.

둘째, 사소설은 이상을 배척하고 외부 사건에 대한 묘사를 중시하지 않으며 다만 작자의 심경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만 중시한다.

셋째, 노골적인 심경묘사는 자연주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는 작자의 사생활과 사생활 중의 육욕적 고뇌, 그리고 관능적 자극 및 변태적 성심리를 폭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허위적인 도덕성에 대해서도 ‘추악 폭로론’적 색채를 띤다.<sup>3</sup>

보다시피 일본 사소설의 특징은 바로 작가가 작품 속에 거짓을 섞지 않고 사실 그대로의 생활체험을 담으려 했다는 점, 적어도 독자로 하여금 그것이 전적으로 작가의 실생활이라고 믿게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사소설은 신변적인 것으로 제재를 국한시킨 결과 작품세계가 협소하고 사회성 및 시대의식이 결여되었으며 풍속성 내지 작가 정신이 희박한 등 결함을 지닌 장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결함들은 작가라는 한 인물의 내면묘사에 전념한 사소설의 자전적 성격에서 생겨난 불가피한 결과이다. 작가의 자아편입의 성향은 객관주의의 성숙을 저해하였고 허구 부정의 경향은 소설을 수필적인 경지로 몰고 갔으며 성과 본능에 대한 과장된 폭로는 인성을 직시하는 작업을 방해하였다.

### 3. 현진건의 초기 창작과 일본 사소설

현진건은 1912년 13세의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독일하여 동경의 성성중학에 입학하였다가 1917년에 졸업하고 다시 동경 독일어(獨逸語) 전수학원에 이수하게 된다. 현진건의 초기 창작활동은 그의 유학시기 즉 1912-1919년 당시 일본문단을 휩쓸고 있던 사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현진건은 일본에서 이와노 호우메이(岩野泡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와노 호우메이는 일본 자연주의 작가들 중에서도 성욕묘사에 가장 과격하였던 작가로서 일찍 반수주의(半獸主義)적 육욕의 갈등을 다루어 지탄을 받기도 했다. 특히 현진건의 《유린》과 《지새는 안개》와 같은 일련의 작품들에 나타난 치밀하고도 과격한 성욕묘사의 장면들은 이와노 호우메이의 영향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현진건은 다야마 가다이(田山花袋, 1872~1930)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다야마의 《슈세끼헤이몬의 최후(重石衛門の最後)》를 모방하여 《불》을, 《생》을 모방하여 《할머니의 죽음》을, 《아내》를 모방하여 《빈처》와 《술 권하는 사회》를 창작하게 된다.<sup>4</sup>

<sup>2</sup> 강인숙, 『자연주의 문학론』, 고려원, 1987년, 재인용

<sup>3</sup> 趙遐秋. 曾慶瑞, 『中國現代小說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7, p462-463

<sup>4</sup> 도모나가노리, 《比較文學적으로 본 田山花袋와 玄鎮健》, 《日語日文學研究》第2輯, P 388

이렇게 현진건은 일본 사소설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의 영향을 받아 손쉽게 고도 충실한 소재인 자기 주변의 신변사를 작품화하면서 작가적 기초를 닦게 되는데 그의 《빈처》와 《술 권하는 사회》 등 자전적 신변작품들은 작자 자신의 실제 생활체험들을 반영하여 더욱 주목된다. 즉 현진건이 어린 청소년 시기에 청운의 꿈을 안고 아내와 헤어져 일본과 중국을 전전하면서 방랑생활을 하던 모습, 공부를 중단하고 귀국하여 바라본 식민지의 암담한 현실, 나라 잃은 통한을 술로 소일하던 무능한 지식인의 절망적인 괴로움, 그리고 술집과 기생집을 편답한 등 자신의 신변사를 주선으로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의 지식인들의 좌절과 고민, 방황 등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래 일본 사소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蒲團)》과 현진건의 《타락자》를 비교하면서 현진건의 초기 자전적 신변소설에 나타난 일본 사소설의 수용과 그 양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4. 현진건의 《타락자》와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

《타락자》를 실례로 현진건의 초기 자전적 신변소설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야마 가다이와 그의 대표작 《이불》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다야마 가다이는 명치(明治, 1868~1912) 말기부터 대정(大政, 1912~1926) 초기에 걸쳐 일본 문단에 큰 영향력을 미친 작가로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서구의 자연주의문학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일본적 자연주의를 수립했다는 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존재이다.

다야마 가다이는 1871년 군마현 오우라에서 태어났는데 1881년2월에 상경하여 교바시(京橋)의 서점에서 견습점원으로 일하다가 1882년 귀향하여 일단 중지했던 학업을 계속하는 한편 한학을 배우기도 하였다. 1886년에 다시 상경하여 사숙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플로베르, 졸라, 톨스토이 등 서구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읽기 시작하였다.<sup>5</sup>

다야마 가다이는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움과 작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소박함과 자연으로의 무한한 지향성을 추구하였다. 그는 《야생화(野の花)》, 《슈세끼헤이몬의 최후》 등 몇 편의 작품 외에도 새로운 경향의 문학, 즉 “무엇이든 노골적이어야 한다. 무엇이든 진실되어야 한다. 무엇이든 자연 그대로여야 한다...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리 부자연스럽더라도 써라. 그건 사실이니까”라는 관점을 제기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가 주장한 ‘노골적인 묘사’는 소설의 장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는데 다야마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사소설 형식을 형성시킨 이유도 이에 다름이 아니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창작된 작품이 바로 그의 출세작 《이불》이다.

《이불》은 자기 체험적 사실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그후 일본 자연주의가 자전적이며 사생활 고백쪽으로 흐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불》은 모두 11개 장으로 구성된 중편소설이다. 소설은 아내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중년 작가가 젊은 여제자를 사랑하여 고민한다는 세속적인

<sup>5</sup> 91 쪽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작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고백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주인공 도끼오는 34살의 문학가로 단조롭고 우울하게 쓸쓸한 나날을 보내는, 자식이 셋이나 딸린 한 집안의 중년 가장이다. 그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에 권태를 느끼면서 어느 서적회사의 촉탁으로 지리서 편찬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기회가 되면 소설다운 소설을 써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열렬한 연애를 통하여 가정이나 직장의 모든 생활을 바꾸고 싶어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셋째 아이가 아내 몸에서 생겨서 신혼의 쾌락은 다 한듯한 무렵이었다. 세상의 바쁜 일도 의미가 없이 일생 작품에 힘을 쏟을 용기도 없이 일상생활, 아침 일어나서 출근, 오후 4시에 돌아와서 똑같은 안해의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자는 단조로운 생활이 연속되는 것에 질리고 있었다. 집을 이사해도 재미가 없다. 친구와 서로 이야기해도 재미가 없다. 외국소설을 섭렵해도 만족할 수 없다. 아니 정원수의 녹음, 비 소리, 꽃의 조락 등의 자연 상태마저 평범한 생활을 하고 게다가 평범하도록 지키는듯한 기분이 들어서 몸을 가눌수 없을 정도로 쓸쓸했다. 길을 걸어 항상 보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고 절실하게 생각했다.<sup>6</sup>

이렇게 한창 무언가 변화를 피하고 싶어하는 도끼오에게 고베에서 사는 요시꼬(19세)라는 한 여학생으로부터 제자가 되어 열심히 문학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며, 결국 그 여학생을 제자로 받아 들이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어 괴로워하는 과정을 펼쳐내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불》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선 주인공과 제자 사이의 사랑이야기가 아닌 작자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고백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살펴본 주인공 도끼오의 상황은 바로 다야마 자신의 것이라는 말이 되겠다. 다야마는 실제로 명치 35년 6월 다른 도시로 이사하였으며, 작품 중의 요시꼬는 미찌요로서 실제로 그녀는 1904년 2월에 상경하여 다야마 집 2층에 머물러 있던 적도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질투한 아내 때문에 누님 집에 그녀를 옮기고는 이 문제에 얽힌 괴로움을 더는 한 방법으로서 박문관 과견의 사설 제2군 중군사진반 주임으로 종군할 것을 결심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현진건의 《타락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주인공이 춘심이라는 기생을 만나 사랑에 빠져들어 가정에 불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병까지 얻어 아내와 태아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내용으로 제목이 암시하듯이 유망했던 한 청년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타락자》의 주인공 ‘나’는 원래 지극히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열심히 공부하면서 찬란한 장래를 꿈꾸는 지식인이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동경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좌절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표면적으로는 가족제도라고 하는 하나의 기존적 사회질서의 규범이 그로 하여금 좌절감을 반추하게 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비운에 오열하고 신음하던 주인공은 마침내

<sup>6</sup> 田山花袋, 《棉被》, 许昌福译, 吉林大学出版社, 2009年1月, 11页  
이하 《이불》의 인용 이 책을 기준함

꿈은 깨어졌다. 환영은 사라졌다. 광명이 기다리던 앞길에 잿빛 안개가 가리었다. 희망의 불꽃은 그물그물 사라져간다. 날이 감에 따라 가슴을 캄캄하게 하는 실망의 구름장만 두터워 갈뿐이었다. 되는 대로 되어라! 위인이 다 무엇이랴! 인생이란 물거품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sup>7</sup>

라고 절규하면서 자포자기한다.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대가 여지없이 무산된 것이다. 결국 작품에서는 현실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지 못하는 지식인의 황폐한 삶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비록 주인공은 가정과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그가 공부를 마쳤다 해도 당시 사회에서는 식민지 체제에 야합하지 않는 이상 그의 꿈은 좌절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인공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극히 피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주인공 ‘나’는 정신적인 고뇌와 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다른 정신적 지주로서의 꿈이나 기대치를 찾아 방황하면서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하는데 그 도피처가 바로 여자이다. 즉 공부와 아내, 술로 얻지 못하는 어떤 감동과 삶의 위안을 여자에게서 얻으려 한 것이다.

마음의 방축은 그만 터지고 말았다. 유희의 흐름은 거리낌 없이 밀렸다. 이 물결 가운데는 싸늘한 이지와 뜨거운 감정이 부딪고 마주쳤건만 이지는 흔히 찢찢 끓는 열수에 넣은 얼음조각 모양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을 잊고 나는 종종 춘심을 방문하였다.

이렇게 ‘나’는 여자를 통해 정신적인 황폐감을 보상받고자 했으나 보상은 커녕 도리어 큰 좌절에 빠지게 되고 완전히 타락하게 된다. 결국 ‘나’는 성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아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까지 성병을 옮김으로써 완전히 몰락하고 만다.

《타락자》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작자가 자기의 실제 체험을 소설화 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설 중의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ㄱ) 나의 유일한 벗은 서책뿐이었다. 나에게 위안을 주고 오락을 주는 것은 지식뿐이었다. 공부만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심술긋은 운명은 그것을 흥톥이 치고 말았다. 불의에 오춘 당숙이 별세하시여 나는 그의 入後가 아니 될 수 없었다. 80 이 넘는 증조모님의 홀손자가 되고 30 세 남짓한 당숙모님의 외아들이 되고 말았다.

(ㄴ) “이름이 무엇?”

“춘심이야요.”

“고향이 어디야?”

“○○이야요.”

나는 먼저 그가 나와 한 고을 사람임을 기뻐하였다.

(ㄱ)는 현진건이 동경 유학 중 당숙 보운 씨가 불의에 별세하자 폐학하고 돌아와 입후가 되어 80이 넘는 증조모와 30남짓한 당숙모를 모시게 되었던 피치 못할 사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ㄴ)는 현진건이 22세 때 대

<sup>7</sup>현진건, 《타락자》, 《학원 한국문학전집》(4 권), 학원출판공사, 1993 년  
이하 《타락자》의 인용 이 책을 기준함

구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방골 기생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실과 거기에서 실제로 ‘춘심’이라는 기생의 유혹을 받아 한때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던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sup>8</sup> 그리고 현진건이 출판사에서 기자생활을 한 경력도 작품 속의 ‘나’의 신분과 너무나 동일하다. 보다시피 소설 중의 주인공의 경력은 현진건의 많은 생활경력과 너무나 일치한 것으로 그의 자전적 소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음 《이불》은 대단한 스케일은 아니지만 묘사법이 이전의 로맨틱인 작품과는 전혀 다른 자연주의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자연의 밑바닥에서 횡령하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발로되는 성욕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여 연정이 고조되어 가는 것을 “자연의 힘이 이 몸을 압박하는 것과 같이…”라든가, “생식의 힘은 한창 나이의 여자를 유혹하기에 주저치 않는다”든가 혹은 “자연의 가장 으스스한데 감추어진 암흑한 힘에 대한 염세의 정이 지금 가슴을 뭉클 엄습해왔다.”고 묘사하면서 연애가 열화같이 불타다가 권태, 피로, 냉혹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조락해가는 식물의 생태와 같은 자연의 힘의 작용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처자를 거느린 주인공이 젊은 여제자를 사랑하여 성적 충동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제자를 고향으로 보내고 난 다음 그녀가 사용하던 침구를 내어 놓고 느끼는 견잡을 수 없는 성욕의 충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도끼오는 그것을 끌어 내었다. 여자의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형언할 수 없이 도끼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눈에 띄게 때가 탄 비로도의 이불깃에 얼굴을 지그시 누르고 그리운 여자의 냄새를 마음껏 들이 마셨다. 성욕과 비애와 절망이 견잡을 새 없이 도끼오의 가슴에 엄습해 왔다. 도끼오는 그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더러워진 이불깃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렇게 《이불》은 주인공의 성적인 감정과 체험을 노골적으로 폭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솔직한 표현은 극히 대담하고 획기적인 것이다.

《타락자》도 《이불》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주인공이 기생 춘심이를 사랑하여 느끼는 감정과 성적 충동을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석에 끌리는 쇠끝 모양으로 우리 둘의 사이는 점점 다가들어 갔었다. 나의 손은 그 부드러운 살에 대기 전에 먼저 그 보들보들한 옷자락에 더할 수 없는 쾌미를 맛보았다…

그 아름다운 입술이란! 모든 것을 잊고 열렬한 키스를 하고 싶었다. 자릿 자릿 놀리는 가슴이란! 그 부드러운 입술이 나의 귀를 스칠듯 말뚝하며 달콤한 키스를 주었다. 나의 입술은 무슨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이 근실 근실 하였다.

명월관에서 상봉을 계기로 주인공은 다시 춘심이를 찾아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데 그때의 감정과 충동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나는 마치 그의 가슴의 사랑을 파악하려는 것처럼 그를 휩싸안았다. 나는 그의 가슴에 온미와 고통을 느끼었다. 마치 그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속살거리는듯 하였다. “나는 다 식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봄날과 같이

<sup>8</sup> 이제민, 《새 자료로 본 빙허의 생애》, 1973, 문학사상, P358

따뜻합니다. 나의 숨은 아주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맥이 뚝니다. 오오 나를 덤혀주세요, 복돋워주세요”

피를 뿜는듯한 언언구구(言言句句)가 단 쇠끝 모양으로 나의 가슴에 들어박혔다. 따근따근한 고통을 느끼면서 신랄한 쾌감을 맛보았다. 나도 그를 지근지근 물어주고싶었다. 물지는 못할 지언정 나의 입술은 그의 입술을 열렬하게 빨고 있었다. 그 위에 핀 키스의 꽃을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것처럼...

보다시피 《타락자》도 주인공 ‘나’의 성적 충동과 감정을 대담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 《이불》의 주인공 도끼오는 미모의 젊은 여제자 요시꼬에게 녀를 잃고 있다가 요시꼬의 애인 다나카가 상경했다는 소식을 듣고 갈등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손을 잡았겠지. 서로 포옹했겠지. 남이 보지 않는 여관방 이층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알아. 몸을 더럽히는 것은 찰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도끼오는 참기 어려웠다...(중략)...우리는 정열도 있지만 이성이 있다! 우리들이란 무엇이냐! 왜 나라고 쓰지 않고 복수의 단어를 사용했을까. 도끼오의 가슴은 폭풍처럼 혼란해져 버렸다.<sup>9</sup>

연령이나 자신의 입장을 잊어버리고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흥분하는 중년 남자의 내면묘사가 잘 드러나 있다. 도끼오의 질투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심지어 다나카가 보낸 편지를 훑쳐보는 몰상식한 행위까지 서슴치 않는다. 결국 주인공 도끼오는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 때문에 술에 만취되어 이성을 잃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도끼오는 너무나 괴로워 갑자기 그 산호수 나무그늘로 들어가 땅바닥에 누워버렸다. 어지러운 감정과 비애가 극에 달해서 전선주에 부딪쳐 쓰러질 듯 비틀대다가 얇은 시공창에 빠져 무릎이 벗겨지기도 하였다.<sup>10</sup>

《타락자》도 아내가 춘심이의 사진을 찢었을 때, 그리고 춘심이가 김승지의 첩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와 질투심 때문에 실성하여 미쳐 날뛰는 주인공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아내가 그의 사진을 찢었을 때 참혹히 죽은 시체를 본 것처럼 간담이 서늘했다. 칼로 에여내는 듯한 슬픔을 느끼었다. 그러자 뒤미처 불덩이 같은 의분이 치받쳐 올랐다. 나는 아내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독하게 소리를 질렀다. 분노는 비등하였다. 나는 성을 어찌할 줄 몰라 침을 부글부글 흘리며 더듬거렸다. 허파가 벌컥 뒤집히는듯 하였다. 숨이 각 막힘을 느끼자 문득 때아닌 눈물이 핑그르 눈초리에 넘치였다...” 들도 없는 나의 애인이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오직 그 하나뿐이다, 참 착한 여자이다. 어진 여자이다. 말이 기생이지 참말 지상 선녀이다. 나는 그에게로 가련다.”

나의 피는 혈관에서 불을 피우며 미쳐 날뛰었다. 어떻게 생긴 놈인지 상관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춘심의 앞에서 보기 좋게 모욕해 주고 싶은 잔혹한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다.

“살림 들어갔어요”라는 말은 비수같이 나의 심장을 찔렀다. 이때야말로 어안이 병병하여 한동안 화석과도 같이 우두커니 서있었다. 하늘도 무너지

<sup>9</sup> 田山花袋, 《棉被》, 许昌福 译, 吉林大学出版社, 2009 年 1 月, P39

<sup>10</sup> 田山花袋, 《棉被》, 许昌福 译, 吉林大学出版社, 2009 年 1 月, P45

고 땅도 꺼지는 듯하였다. 눈앞이 캄캄하였다. 집 잃은 어린애나 같이 속으로 울며불며 거리로 방황하였다.

이렇게 《타락자》도 질투심과 분노로 절망하고 방황하는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이불》과 《타락자》는 모두 작자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소설화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인공이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느끼는 사랑과 성적 충동을 감상성과 노골적인 묘사로 대담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작품이 아무리 다야마 가다리와 현진건이 표백된 자전적인 소설작품이라 하지만 주인공 도끼오와 ‘나’가 곧 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불》과 《타락자》에 아무리 다야마 가다리와 현진건의 상황과 심경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이 곧 작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면 다야마 자신이 실제로 여제자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명상이나 질투로 괴로워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불》에서의 도끼오가 제자 요시꼬에 대한 감정은 그의 생활의 전부인 것이다. 다만 다야마는 여제자를 둘러싸고 그의 내부를 휩싸고 도는 여러 가지 정념이나 고뇌를 여제자에게 너무나 밀착하고 체취도 같이 하는 주인공 도끼오라는 인물을 설정하여 하나의 스토리로 전개시켰을 뿐이다. 이는 《타락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현진건이 실제로 대구에서 기생 춘심이와 가깝게 사귀었다고는 하지만 작품에서처럼 성병에 걸릴 정도로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현진건도 다야마와 마찬가지로 당시 자기의 상황과 심경을 작품에 확대하여 하나의 스토리로 전개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불》과 《타락자》는 모두 작자 자신의 신변에서 취재하여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랑과 성적 충동을 노골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두 작품은 내용과 표현기법, 그리고 제재 선택 등 면에서 많은 비슷한 점을 보인다. 두 작품이 공유하는 점이 이렇게 많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현진건이 일본 유학시기 당시 일본 문단에 만개되었던 사소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이며, 더욱이 위에서도 보듯이 실제로 《타락자》에는 다야마 가다리의 《이불》의 흔적과 자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진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본 사소설의 형식적 차용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주변의 신변사를 작품화하여 작가적 기초를 닦은 것만은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소설이 어떠한 결함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전적인 것이 아주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이다.<sup>11</sup>

여기서 한가지 더 첨부할 것은 현진건이 아무리 다야마 가다리의 《이불》의 영향을 받고 《타락자》를 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소설 작품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이불》은 전형적인 사소설로서 주로 작자의 내면세계를 다루면서 그 소재가 주인공의 내면으로 한정되었는바 자기 표백을 시도한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타락자》는 작자의 내면세계를 발로하면서도 현진건만의 강한 사회적 관심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체험의 반영이 아니라 자기 경험의 일부를 통

<sup>11</sup> 정인문, 《현진건 초기소설과 일본문학과의 관련 양상》, 《국어국문학》(10 집), 1990, P167-168



하여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의 강한 민족의식과 지식인의 단면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불》과 크게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이불》은 다만 젊은 여제자에 대한 주인공의 모순된 감정과 성적 충동, 그리고 그로 인한 고민과 방황을 아무런 가식이 없이 적나라하게 표현한데 반하여 《타락자》는 주인공이 춘심에게서 느끼는 사랑과 성적 충동, 그리고 방황과 고민을 통하여 식민지 시대에 현실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는 지식인의 황폐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타락자》는 《이불》보다 사회성과 시대성이 더 짙은바 당시 한국의 사회상황과 지식인들의 생활과 추구 등을 간접적으로 보아 낼 수 있다.

한마디로 《타락자》에서의 주인공의 방황과 타락은 3.1 운동이 실패로 끝난 직후의 암울한 사회상황과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지식인으로서의 작자 자신의 고뇌의 모습을 작품화한 것이며 또한 작자는 식민지사회가 안고 있는 한계와 당시 여러 가지 제약, 식민지사회의 지적, 정신적 풍토의 굴절상을 나타낸 것이다.<sup>12</sup> 즉 1920년대 초 식민지시대 한국 지식인들의 고뇌와 좌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동시에 자학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만이 있을 뿐 현실을 개혁해 나가려는 굳은 의지와 적극적인 저항 의식이 부족한 나약한 지식인--타락자의 형상을 창조하여 주목된다.

#### 4. 나가면서

본고는 일본 사소설과의 연관성 속에서 《타락자》를 실례로 현진건의 일본 사소설 수용 양상과 자전적 신변소설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현진건은 일본에 유학하면서 당시 일본에 성행하였던 일본 사소설의 영향, 특히는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의 영향을 받아 《타락자》를 창작하였다. 따라서 소설은 《이불》과 마찬가지로 작자의 실제체험과 내면세계를 대담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바 자전적 색채가 특히 짙다. 따라서 소설에서 주인공의 형상과 행적은 현진건의 경력과 발자취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특히 유의할 것은 현진건이 아무리 다야마 가다이의 《이불》을 모방하여 《타락자》를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즉 소설의 내용과 표현기법, 그리고 체재 선택 등 여러 면에서 많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두 소설작품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이불》은 일본의 전형적인 사소설로서 주로 작자의 내면세계를 다루면서 그 소재가 주인공의 내면으로 한정되었지만 《타락자》는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사회성과 시대성을 담아냄으로써 소설에는 1920년대 초 식민지 하에서 한국 지식인들이 겪는 불화와 갈등, 좌절과 타락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진건은 당시 한국의 시대상을 바탕으로 일본 사소설의 표현수법을 창조적으로 응용하여 사소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전적 소설을 창작하였다. 현진건이 사용한 자전적 서술 방식은 진실된 자기의 폭로를 통하여 한 시대 청년들의 고민을 폭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인의 인생과 사회의 축소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현진건의 일본 사소설 수용과 그 양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작자가 특정된 시대에 전례에 없었던 일본 사소설을 접수, 수용하여 독특한 창작개성으로 자기의 신변사를 소설화하면서 한국 근대문학사에

<sup>12</sup> 박미희, “현진건의 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89년

자전적 신변소설이란 새로운 장르 형성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근대소설사적 의미와 가치를 구명하는데 실제적인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박재범, 《곽말약, 옥달부의 신변소설과 일본의 사소설》, 『중국어논총』  
 강인숙, 《자연주의 문학론》, 고려원, 1987년  
 趙遐秋・曾慶瑞, 『中國現代小說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7  
 도모나가노리, 《比較文學的으로 본 田山花袋와 玄鎮健》, 《日語日文學研究》  
 第2輯  
 이재민, 《새 자료로 본 현진건의 생애》, 문학사, 1973  
 정인문, 《현진건 초기소설과 일본문학과의 관련 양상》, 《국어국문학》(10집),  
 1990  
 박미희, 《현진건의 소설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89  
 김효자, 《일본 사소설의 성립요인과 그 주제의식》 《한국 일본학회》, 1982  
 변태수, 《현진건문학에 나타난 사회성 고찰》,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1982  
 오상현, 《일본 사소설의 이론과 유형》, 《비교문학》(19), 1994  
 이등정 외, 《일본 사소설의 이해》, (한림신서 일본학 총서 34), 서울소화,  
 1997

## 【中文摘要】

二十世纪二十年代至三十年代，韩国文坛出现了大胆率真地描写作者自身体验、感觉、意识，毫无保留地暴露作者内心世界的新形式小说。韩国把这类小说作品叫做自传体小说，它开创了韩国小说史上一种崭新的创作形式。该形式试图在小说的内容和形式上使用一种不同于以往的方式，从小说学的角度来看，具有巨大的实际意义。但韩国近代文学史上出现的这种新形式小说的出现深受日本近代私小说的影响，因此对其的研究必须与日本私小说的研究同时进行。但是时至今日私小说对韩国近代文学的影响是微乎其微的，并且相关方面的研究也不够深入。因此，本论文在探讨日本私小说的文学特征的同时，以《墮落者》为实例来研究玄镇健对日本私小说的收容以及借鉴情况。